

■광주일보 경제 아카데미(여성 특강) 유진투자증권 조병문 전무 '하반기 금융시장'

“美·中 경제지표 불투명 국내 증시 하락 가능성”

올해 3분기 국내 증시는 미국의 3차 양적완화 가능성이 낮고 중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인해 상승보다는 조정 및 하락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전망됐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인 조병문 전무는 지난달 30일 여성시청 제1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경제아카데미에 참석,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와 자산관리 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이날 특강에는 여수지역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최근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 전무는 “한국은 GDP의 60%가 수출일 정도로 수출로 먹고 살고 양대 수출국이 미국과 중국인 만큼 두 나라의 향후 경제가 국내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두 나라의 사정이 남북치 않아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로 먹고사는 미국의 경우 소비를 끌어내는 고용지표가

중요한데 최근 들어 나빠지고 있고 6월말로 끝난 2차 양적완화(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번에 걸친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린 2조 달러가 실질경제로 유입되지 않고 1조5000억달러나 은행에 묶여있는데다 물가까지 가파르

향을 미치지 않으면 G2(미국·중국)의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지표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무는 이와 함께 국내 증시를 전망하는 주요 경제지표로 유가와 달러 인덱스(미국 달러의 가치)에 따른 캐리 트레이드(이자가 한 국가에서 빌린 돈으로 수익이

높은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방식)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유가는 미래를 읽는 창으로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 수요가 있다는 의미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양적완화가 종료되면서 캐리 트레이드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점도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전폭적으로 7~8월은 2분기 및 상반기 기업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에 기업실적이 주가에 영

향을 미치지 않으면 G2(미국·중국)의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지표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무는 이와 함께 국내 증시를 전망하는 주요 경제지표로 유가와 달러 인덱스(미국 달러의 가치)에 따른 캐리 트레이드(이자가 한 국가에서 빌린 돈으로 수익이 높은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방식)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유진투자증권 조병문 전무가 지난달 30일 여성시청 제1청사에서 열린 광주일보 경제아카데미에서 세계 경제 및 증시에 대한 전망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美 3차 양적완화 불가능...중 간혹재정

수출 비중 높은 한국에 부정적 영향

3차 양적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 전무는 또 중국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화 증가율을 계속 떨어뜨리고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등 긴축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폭적으로 7~8월은 2분기 및 상반기 기업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에 기업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G2(미국·중국)의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지표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청희기자 chkim@



“새콤달콤 자두의 계절이 왔어요” 30일 광주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여름 제철과일인 자두를 선보였다. 자두는 비타민 A가 많아 아맹증과 피부 건조증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100g에 2500원. <광주 신세계 제공>

“공격 경영으로 점유율 34% 도전”

광주은행 지역발전본부 신설·영업맨 전진 배치

광주은행이 오는 2013년 광주·전남 총수신 34% 달성을 위해 '지역발전본부' 신설과 영업에 정통한 영업맨들을 대거 승진 발탁하는 등 공격 경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3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최근 하반기 조직 개편 인사단행을 통해 “광주은행의 지역 내(광주·전남) 총수신(대출)을 2013년까지 대구은행의 지역 점유 비율인 34%에 근접토록 하기 위해 전 직원 한 마구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에서 각각 총수신 30.3%(광주 42.2%, 전남 17.2%), 총이익 25.1%(광주 31.2%, 전남 16.1%)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대구·경북에서 수신점유율 34.5%, 여신점유율 29.1%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은행은 부산에서 수신점유율 32.49%, 여신점유율 25.69%를 기록하고 있다.

송행장의 이같은 경영목표는 최근 대형 은행들의 영업전진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이 지역시장 점유율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경영을 통해 점유율을 신장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를 위해 최근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하반기 조직개편 및 인사를 통해 영업전진의 준비를 마쳤다. 탁월한 영업력을 인정받고 있는 정성수 전남서부영업본부장이 경영기획본부장(상무)으로 전격 발탁됐고, 김영섭 하남광단지점장이 전남서부영업본부장으로 기용되는 등 영업에 정통한 영업본부장과 일선 점포장들을 대거 승진 발탁, 영업전진에 준

비하고 있다. 또 지역밀착 사업과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본부 조직을 중전 8본부(6영업본부)28개 부에서 9본부(6영업본부)30개 부서 체제로 개편했다. 금융계 '마담방'인 조영현 부행장이 사령탑을 맡은 지역발전본부는 앞으로 지역밀착경영을 강화하고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통해 지역 관공시 시장 지원과 지역개발 사업, 사회공헌 활동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조영현 광주은행 지역발전본부장은 “단순히 영업력 확대를 통한 수신점유율 신장에 그치지 않고 여신 점유율도 늘려 지역 경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은행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역 하반기 제조업 경기 ‘부정적’

광주·전남 제조업체들은 하반기 제조업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물가 불안과 소비심리 위축, 휴가철 비수기가 더해지면서 제조업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역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449개를 대상으로 ‘2011년 6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 제조업의 6월 업황BSI(기업경기 실시자수)는 전달보다 6포인트 하락한 87로 나타났다. 또 7월 업황전망 BSI도 89로 전달보다 8포인트 떨어져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6월 매출BSI와 신규수주BSI는 전달보다 각각 2포인트와 8포인트 내리고 생산BSI는 5포인트 뛰었으며 7월 전망 매출BSI와 신규수주BSI는 전달보다 각각 8포인트와 6포인트 하락했

다. 비제조업의 6월 업황BSI는 81로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으나 7월 업황전망BSI는 76으로 3포인트 내렸다. 6월 매출BSI 및 채산성BSI는 전달보다 8포인트, 4포인트 각각 오른 가운데 인력사정BSI는 2포인트 하락했다. 또 7월 전망 매출BSI와 채산성BSI는 각각 9포인트와 3포인트 상승했고 인력사정BSI는 1포인트 하락했다.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23.4%), 불확실한 경제상황(12.5%), 등이 꼽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우 600g에 1만원 광주축협, 14일까지

광주축산농협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간 한우고기를 삼겹살보다 저렴한 가격적인 가격에 할인 판매한다.

광주축협은 지난 30일 한우 구입용 등심 600g(1근)을 삼겹살(1만3000원)보다 저렴한 1만원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국거리와 불고기용 한우는 600g에 8400원에 판매한다. 이 행사는 1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 동구 학동 광주축협 하나마트와 광주 시내 축협 직영 매장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안명수 조합장은 “산지 소갈 하락과 소비부진으로 고통받는 생산농가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 산지가격은 지난해 6월 650kg 한우 수소(비거세) 기준으로 520만원이었던 것이 올들어 가격이 하락해 현재 3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사료값이 폭등하면서 한우가격이 사료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구제역 여파로 한우고기 소비가 급감한데다, 최근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한우 사유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보헤 인쇄주병 ‘공용병’으로

보헤 인쇄주병이 소주 공용병으로 제작돼 유통된다. 보헤양조는 30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은 국내 소주업체(10개사)중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360ml용량의 소주병을 동일한 형태(왼쪽)로 제작, 재사용함으로써 생산비용 절감과 자원순환성 향상전력으로 연간 329억원, 한 해 6900t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헤 관계자는 “현재 인쇄주병이 공동으로 제작되는 소주병으로 점차 교체될 예정이다”며 “인쇄주병의 소멸은 2년여 정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송 “발효 호소”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북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 광주1등맛집 · 다담담 한국맛집 ·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 광주은행 소호명가

古家 고향의 맛

고가 한식 뷔페 오픈

일시 중단 하였던 한식 뷔페를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드릴 **한식 뷔페**에서 맛과 정성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약탕기 홍삼 삼계탕

홍삼 외 15가지의 엄선된 약재와 견과류를 첨가한, 차별화된 진한 육수의 참맛을 선사합니다.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고가 약소리탕

약탕기홍삼삼계탕 13,000원
한/식/뷔/페 6,000원
약오리탕 20,000원
반마리 40,000원
토종닭 백숙 45,000원

예약문의 062)226-8254 ※주차정 및 게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권비